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축산농가 지킨다

전주시, 작물·축산 피해 예방 기술지원·예찰 강화·농업인 건강 보호 활동 등 폭염 종합대책 지속 추진

전주시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 제적 대응에 나선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작물·축산 피해 예방 기술지원 △예찰 강화 △시설물 점검 △긴급 복구 체계 구축 등 폭염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폭염이 다소 주춤했으나,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9월까지 무더위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자 2454명 중 농업 분야는 380명(사망자 4명)으로 전체의 15.9%, 사망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205명 대비 약 1.9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온열질환 예방 물품(모자, 쿨토시 등) 제공 △안전 전수작 리플릿 배포 △작업 시간 조정 유도 △충분한 수분 섭취 안내 등 농업인 건강 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여름철 폭염 주의 농업인 안전수칙

있다.

또한 시는 현재까지 전주시역에서 농작물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생산성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폭염 대응 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수시설과 재배 환경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지 작물에 대해서는 차광망 설치와 스프링클러·미세살수 장치 등을 통한 수분 관리 기술을 현장 지도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는 환기 및 냉방장치 가동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동시에 고온기 출하

작물의 품질 저하 방지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병해충 예방 및 정보 전파도 병행한다.

축산 분야의 경우 시는 환풍기·미스트 등 온도 저감시설 가동 여부 점검과 더불어 '폭염 대비 가축관리요령' 홍보 및 축산농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 폐사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폭염 대응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용 40대를 추가 공급하는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질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시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현장 중심의 예찰 및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농가 생존과 직결된 재난 상황"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기술지원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전주 농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안도 함께 반영해 공존을 위한 정책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설문 참여는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홍보물 내 QR코드 또는 설문조사 링크(반려인용=<http://naver.me/588FJt1Q>, 비반려인용=<http://naver.me/x9zJvddX>)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품격 있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만든다

전주시, 심판진과 적극 협력 경기지원단 발대식 가져

전주시가 9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을 공정하고 품격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대회 심판진과 적극 협력기로 했다.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참여하는 심판의 공정한 경기 운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에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참여하는 심판의 공정한 경기 운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에 앞서 경기 운영 준비상태 점검 및 대회에 참여하게 된 심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

로, 안승용 대한드론축구협회장을 비롯해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국제심판위원회 위원과 경기심판, 경기위원,

지역별 지회장, 심판 연수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심판·심판 연수생 시상 △연수생 임명장 수여 △심판 선거 △경기지원단 결의 퍼포먼스 △드론축구월드컵 대진표 안내 및 경기순서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지원단은 결속력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공정한 경기 운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대회에 걸맞는 심판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대식에서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시범경기 종목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조종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는 슈퍼파일럿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책의 도시 전주시, 그림책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책의 도시 전주시가 지역 그림책 기반을 강화하고 그림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전문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기로 했다.

시는 9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실에서 총 12회에 걸쳐 그림책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그림책의 역사와 종류 등 전반적인 그림책 기본 교육으로 구성되며, 그림책 활동단체인 '이음'의 전선영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선착순 30명까지 접수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 실명제 도입

전주시가 주요 상권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통행 불편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용기 실명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전주시역 음식점들이 사용하는 영업용 음식물 수거용기(60, 120L)를 대상으로 업소명과 전화번호

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수거가 이뤄진 이후에는 각 업소에서 수거용기를 내부에서 보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세척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배출시간(수거 전일 오후 6시~수거일 오전 6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반려동물 정책 발굴 설문조사 실시

전주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기로 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를 현재 개와 고양이를 양육 중이거나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반려인, 양육 경험이 없는 비반려인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설문은 △반려동물 양육 실태 △양육 중 어려움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입양 인식 △펫타켓(공공예절) 준수 실태 △전주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인의 목소리는 물론, 비반려인의 인식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12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전주시 관할 예비군 지휘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안보태세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튼튼한 지역 안보'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앞두고 튼튼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12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전주시 관할 예비군 지휘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안보태세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 예비군 지휘관과 전주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을지연습 준비 상황 △지역방위 계획 △비상 상황 대응체계 △예비군 운영 현황 및 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 △군·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비상 상황 대응능력 강화와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재난 위험 속에서 군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을지연습을 계기로 민·관·군이 하나 되는 안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원주 통합 상생 방안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 등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범기 시장은 "을지연습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같은 훈련"이라며 "예비군 지휘관 여러분이말로 전주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핵심 주역이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